

지역화폐 논쟁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교수

이 글에서는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지역화폐는 기본 소득과 결합된 경우(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차 및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경기도 일반 발행 등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소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를 포함한다.

1. 지역화폐와 경제 전체 소비

송경호·이환웅(2020)은 2018년까지의 지역 화폐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해서 지역화폐 가 소비 증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적었던 2019년 이전의 자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비교하지 않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과 적은 산업을 비교 하였다. 가맹점이 많은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가맹 점 비율이 절반 미만이었으므로 지역화폐 효과가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다.

김미루·어윤해(2020)는 신용카드 매출 데이 터를 활용해서 2020년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의 매출액을 비교하였는데, 재난 지원금으로 인한 카드매출 증가액은 약 4.0조 원 으로서, 재난지원금 대비 약 30%였다.

이 연구에서도 대조군 설정에 문제가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은 주로 고소득층이 많 이 소비하는 업종이고, 해당 시기는 확진자의 감 소로 고소득층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던 시기 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불가 업종을 대조군으로 사용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과소추정된다.

김을식, 김태영, 김재신(2020)은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1차 재난지원 금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1차 재난지원 금은 45%~60%의 소비 증가를 낳은 것으로 추 정되었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이용률 을 15.5%p 높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이용률의 약 1.7배에 해당된다.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는 거시 통 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2020년 4번의 추경을 통해서 총 66.8조 원의 재난지원 사업이 실시되 었다. 이 중에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소비 증가율은 1사분기 -6.0%, 2사분기 2.7%, 3사분기 -1.4%

로서,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 2사분기에
서만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20년 분기별 소비 증가율(전년 동분기 대비)

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추경일	1차 3.17	2차 4.30	3차 7.30	4차 9.22
추경액	11.7조 원	12.2조 원	35.1조 원	7.8조 원
지원성격	선별	보편 (1차재난지원금)	선별	선별 (2차재난지원금)
소비증가율	-6.0%	2.7%	-1.4%	

자료: 통계청 『계동향 조사 2020년 1사분기~3사분기』로부터 작성

2.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매출

지역화폐의 우선적인 목표는 경제 전체의 소비 증가가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가이다. 설령 경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없더라도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있다면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유영성 등(유영성, 윤성진, 김태영, 김병조, 마주영, 2020)은 2019년 4개 분기에 걸쳐 약 3,8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화폐 결제 경험 유무에 따라서 ① 종합적으로 보아서, 지역화폐 결제 경험은 매출을 206만 원 상승하였다. ② 동일한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있었던 시기는 없었던 기기에 비해 115만 원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③ 점포 간 효과를 분석하면 지역화폐 결제가 있었던 점포는 없었던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475만 원 높았다.

지역화폐 결제액에 따라서 ① 종합적으로 보아서, 결제액이 100만 원 증가하면 매출액은 145만 원 증가하였다. ② 동일 점포 내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증가할 경우 매출액은 57만 원 증가하였다. ③ 점포 간 효과를 분석하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높은 점포는 낮은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535만 원 높았다.

이 연구는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을 조사한

것이므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정책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형 매장의 입지를 제한한다는지,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거의 실패하였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을 소비 지역과 업종이 한정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3. 지역화폐와 연대경제 형성

지역화폐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연대경제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경제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모두가 공유부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 ②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 써야 하는 이타적 의무의 지각 ③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만족을 넘어서 이타적 의무를 완수했다는 자긍심 ④ 손님들이 한편으로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자신들의 가게를 방문했다는 것을 의식, 친절함 대접, 다시 방문할 유인 ⑥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 ⑦ 조세를 부담할 의사 증가 ⑧ 정부에 대한 지지율 상승

이 중에서 ⑦과 ⑧의 요인의 작용은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1

5월7일부터 이틀간 시사주간지 《시사인(IN)》과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살 이상 남녀 1천 명에게 웹 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 《시사인(IN)》은 이 설문 결과를 두고 “세금 관련 질문에서 신

되도가 올라갔다고 답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데, 그 드문 일이 일어났다”고 분석했
다. 《한겨레21》, 2020. 6. 12

• 사례 2
2021년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
에서 열세에 놓인 것으로 보도된 여당 후보
들은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을 약속하였다.

참고문헌

김미루, 오윤해(2020),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 포럼』 제281호(2020-06)

김을식, 김태영, 김재신(2020), “1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나?”, 『이슈&진단』 No.443, 경기연구원

송경호, 이환웅(2020),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9.15.

유영성, 윤성진, 김태영, 김병조, 마주영(2020),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 브리프』, 2010-10.